

##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 연구\*

은지현\*\* · 조영하\*\*\*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경기도 소재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142명 전원을 대상으로 폭력지수 10단계를 활용한 학교폭력 인식 경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1) 전반적인 인식,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인식, 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개입 단계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은 학교폭력지수 10단계 중 4단계(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통상 학교폭력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8단계(때리고 발로 차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탈북학생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고 가해자일 경우에는 다소 관대한 성향을 나타냈다. 어느 수준의 폭력단계에서 교사가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탈북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지수 10단계 중 4단계(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교사가 개입해야 할 시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탈북학생들은 성별이나 학교급과는 상관없이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면 교사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 경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교폭력, 탈북청소년, 학교폭력지수

\* 이 논문은 은지현의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2014년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한겨레고등학교 교사, 제 1저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교신저자, youcho@khu.ac.kr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남북분단이래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7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들 중 청소년은 13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본격화되었고, 지금은 매년 3,000명에 가까운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통일부 통계자료와 교육부(2013)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자 수는 총 26,122명이고 이들 중에서 10세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3,851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자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규학교에 등록된 탈북청소년은 2013년 4월 기준으로 이미 2,022명에 이른다(교육부, 2013).

그렇다면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의 정규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학교알리미서비스와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탈북학생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각각 0.9%와 1.9%인 반면, 탈북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각각 3.8%, 4.8%로서 본 통계수치만으로도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북한에서 획득된 이들의 이질적 교육·문화적 경험과 인식도 한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신효숙(2009)에 의하면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지속되고 식량과 각종 세외부담으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북한청소년들의 규율이완과 일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학교의 출결규정과 졸업요건이 엄격하지 못한 관계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통제력도 느슨하여, 학생들의 흡연, 마약, 음주, 이성교제 등의 일탈행동과 절도 등의 범죄행동도 늘고 있다. 북한청소년들의 패거리문화도 일시적 일탈현상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주목할 만한데(조정아, 2004), 북한청소년들은 패거리 내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민성길, 2000).

이질적 교육경험과 문화를 가진 탈북청소년들이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다 보니 남한청소년들에게는 당연한 학교문화가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아울러,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외상과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윤상석, 2013). 문

화적으로 낮설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인 학교폭력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11).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예, 학교폭력사실의 생활기록부기재)되고 있는 현재, 남한사회에 막 적응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처벌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통일한국시대의 도래에 앞서 먼저 온 우리의 미래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할 곳은 학교이다. 그러므로, 남한학교의 생리와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연구는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이질적 교육·문화경험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정규학교교육 속에서 학교폭력을 인식하는 경향성을 탐색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적응을 돕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탈북청소년들은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교사가 개입해야 된다고 인식하는가.

## II. 개념 및 연구동향

### 1. 학교폭력: 법률적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심하게 언어맞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의 명백한 학교폭력의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술한 법률적 정의에 의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피해 정도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분노·불안 등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즉, 학교폭력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되고 판단된다(도중진, 박광섭, 박행렬, 2012).

표 1  
학교폭력의 유형

유 형	내 용
1.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li>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모두 포함</li> </ul>
2.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소문이나 험담하기, 외모나 능력 무시하기, 약점을 가지고 놀리기, 욕설이나 폭언</li> <li>- 언어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설사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포함되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li> </ul>
3.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li> </ul>
4. 위협 및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이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금품갈취와는 구분됨</li> </ul>
5. 강제적 심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li> <li>-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li> </ul>
6. 금품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주로 하급생이나 신체가 약한 동급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유형</li>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건어오라고 지시하는 행위,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고 한 후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모두 해당</li> </ul>

유 형	내 용
7. 신체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모두 포함
8.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나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출처: 교육부(2014)

학교폭력은 표 1과 같이 그 유형을 세세히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유형들 중에서 1부터 5까지의 유형은 정신적 폭력, 5유형과 6유형은 금전적 폭력, 7유형과 8유형은 신체적 폭력으로 재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강제적 심부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신적 폭력과 금전적 폭력에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2. 탈북청소년과 학교적응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 연령기의 집단을 이룬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와 제 3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은 협의의 개념으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상식적으로 볼 때, 탈북청소년이란 미성년인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탈북청소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까지의 청년들이 포함된다.

표 2

탈북청소년 통계 현황

(명(%))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체		
	북한 출생	중국 출생	계	북한 출생	중국 출생	계	북한 출생	중국 출생	계
계 (%)	580 (48.2)	624 (51.8)	1,204 (100)	704 (89.3)	84 (10.7)	788 (100)	1,284 (64.5)	708 (35.5)	1,992 (100)

\* 출처: 교육부(2013:3)

한편,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탈북청소년에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포함된다(표 2 참조). 이들은 법률이 정의하는 협의의 북한이탈주민 개념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가정의 자녀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한아동·청소년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탈북아동·청소년의 수도 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집계된 탈북아동·청소년은 3,823명에 이른다.

표 3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 교육 시설 (전일제)	무학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600	559	231	247	192	193	232 (6.1)	1,569 (41.0)	3,823 (100)
	1,159		478		385				
	2,022(52.9)								

\* 출처: 교육부(2013:2)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표 3에서 보듯이, 학교유형을 떠나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탈북이동·청소년은 총 2,254명이고, 이들 중에서 정규학교 재학 비율은 89.7%, 대안교육시설 재학 비율은 10.3%이다(무학자 제외).

표 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구 분		초	중	고	계
'08 년도	'07. 0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09 년도	'08. 04. 재학생 수	492	294	180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8.8	14.4	6.1
'10 년도	'09. 04. 재학생 수	585	298	265	1,149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7	9.4	4.9
'11 년도	'10. 0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 년도	'11. 04. 재학생 수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 출처: 박혜숙(2013:40)

한편,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학교중도탈락자현황일 것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낮아지고는 있으나 학교알리미서비

스에 공시된 남한고등학생들의 중도탈락률(2011년도 기준)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다. 박혜숙(2013)에 의하면, 탈북청소년들은 주로 기초학력부족이나 고연령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가정의 경제·환경적 사정 등에 의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등 진로변경에 의한 중도탈락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탈북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동향

#### 1)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동향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학계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그 주제와 관점도 다양하다. 최근 까지 이루어진 학교폭력 관련 연구동향은 주제와 내용에 따라 표 5와 같이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표 5

####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주제	연구자	년도	제 목
지표· 법제 연구	박효정	2008	학교폭력 지표 개발 연구
	김형섭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실태	이승권	2008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마산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김형우	2009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김범수	2009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이상교	2012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예방	정미경	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연구
	박성기	2008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복	2009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주제	연구자	년도	제 목
	이봉주·김예성 ·입정임	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연구: 논리모델에 기반하여
	신옥주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박일수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초등학교의 사례 분석
인식	조영애	2007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태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 교사 와 학부모, 경찰을 중심으로
	방기연	201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윤철경·강영숙	2012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정영숙	201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
	윤영수	201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난 수년간 학교폭력 관련 연구동향의 주류를 이룬 주제영역은 실태와 예방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폭력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사례 기반 대책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태와 예방이라는 주제영역이 학교폭력 관련 연구동향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우리 학계의 관심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이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201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영역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당사자인 학생보다는 주로 교사나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 대상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관심을 두었다.

학교폭력 관련 연구동향을 이루는 또 다른 주제영역은 지표 및 법제 관련 연구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법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데 활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두드러진 2004년을 기점으로 양·질적 증가 경향을 보여 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학교적응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중후반 연구들에서는 주제와 접근관점 등이 다양해졌고, 정책방안의 제시도 구체화되었다. 내용 면에서 보면, 관련 선행연구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의 적응·부적응 실태, 이들의 정착지원방식과 교육정책 등을 주요 주제영역으로 다루었다.

표 6

탈북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주제	연구자	년도	내 용
사회 적응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이기영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홍덕기	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홍순혜·김선화·이숙영 ·윤지혜	200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 문화 적응 실태 및 남한생활인식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김현주	2003	탈북청소년의 공교육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학교적응
	금명자·권혜수·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황진수·전신욱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지원 방안
	문성호	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복지의 과제
	박윤숙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안권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곽종문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과 사회적응의 과제

주제	연구자	년도	내 용
정책 지원	전익수	2002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정	2006	새터민 지원 NGO 실태 조사 연구
	김윤나	2010	시민청소년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장진희	2013	새터민 청소년 정착과 교육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 정책	최동선	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 연구
	최경자	2008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권이중 · 이상오 · 김용구	2008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 · 제도적 보완 방안
	허은영	2009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이경옥	2013	탈북청소년들의 학교교육과정, 학교생활, 진로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만길 · 강구섭 · 김일혁 · 이향규 · 김윤영	2013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V)

표 6에서 보듯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주요 관심주제는 이들의 남한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지원방안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유형, 심리·사회·문화적 적응실태, 학교적응과 교육방향 탐색, 청소년복지차원의 정착 지원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 및 진로 실태의 파악, 학습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3) 탈북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과 탈북청소년은 지난 십 수 년간 우리 학계가 주목해 온 주요 주제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과 교육 및 학교적응의 측면에서 탈북청소년들을 조망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 학계가 탈북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적응에 관심이 높다면, 학교폭력은 반드시 연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술한 연구동향은 학교폭력과 탈북청소년을 교집합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지와 분석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142명 전원이다. 이들에 대한 배경설명은 표 7와 같다.

표 7

본 연구에 참여한 H특성화중·고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들의 배경 및 특성

기준	구분	명	%
성별	남자	79	55.6
	여자	63	43.1
학교급	중학교	50	34.7
	고등학교	92	63.9
국내 입국 후 거주기간	1년 미만	27	18.8
	1년 이상 ~ 2년 미만	21	14.6
	2년 이상 ~ 3년 미만	25	17.4
	3년 이상 ~ 5년 미만	29	20.1
	5년 이상	40	27.8
전체		142	100.0

2006년에 개교한 H특성화중·고등학교는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교육 특성화정규학교로서 학교유형은 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율학교)이다. 인가학급은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6학급이고, 학급당 정원은 20명이며, 남녀공학이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H특성화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 특수성 상 한 달에 1~2회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신입생들이 정기적으로 편입함에 따라 국내 거주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학생부터 10년이 넘는 학생까지 다양하게 재학 중에 있다.

따라서 H특성화중·고등학교는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추출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등정규학교를 다니는 전국의 탈북청소년 815명 중에서 142명(17.4%)이 H특

성화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은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탈북청소년들을 대변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설문조사도구 및 연구절차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핀란드 교육당국도 오래전부터 학교 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키바(Kiva)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키바 코울루(Kiva Koulu)라고 하며, ‘Kiva’는 핀란드어로 ‘괴롭힘에 맞서다(Kiusaamista Vastaan)’의 앞 두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면서, 자체로도 ‘좋은’의 뜻을 가지는 중의적 표현이다. 또한 ‘Koulu’는 핀란드어로 ‘학교’라는 뜻이므로 Kiva Koulu프로그램은 ‘괴롭힘에 맞서는 학교, 즐거운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핀란드는 폭력행위를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표 8과 같이 10단계의 폭력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표 8  
학교폭력지수 10단계

단계	폭력행위
1단계	은근히 따돌리는 것
2단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3단계	나쁜 별명을 붙이는 것
4단계	나쁜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5단계	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6단계	위협적인 언행 및 헐박 하는 것
7단계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8단계	때리고 발로 차는 것
9단계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
10단계	살인

\* 출처: 최성애·조벽(2012: 361)

연구자는 표 1의 학교폭력 유형과 표 8의 폭력지수 10단계에 기초하여 정영숙연구(2013)의 설문문항들 중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경향을 조사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4개의 문항을 추출 및 수정·보완하여 표 9와 같이 설문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학생들은 자신이 당면한 상황이나 문제에 기초하여 폭력지수 10단계 중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는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9

본 연구의 연구문제 대비 설문조사문항

연구문제	문항내용
1	폭력지수 10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가
2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지수 10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폭력지수 10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가
3	폭력지수 10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교사가 개입해야 된다고 인식하는가

연구자는 H특성화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2014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 경향의 탐색에는 SPSS 18.0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 IV. 분석결과

### 1.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

#### 1)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향

표 10은 폭력지수 10단계에 기초하여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향을 분석한 결과이다(연구문제 1).

표 10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명(%))

특성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9 단계	10 단계	$\chi^2$ (p)
성별	남자	18 (23.0)	8 (10.3)	12 (15.4)	16 (20.5)	11 (14.1)	7 (9.0)	1 (1.3)	5 (6.4)	0 (0.0)	0 (0.0)	4.00 (.91)
	여자	12 (19.4)	8 (12.9)	6 (9.7)	12 (19.4)	13 (20.9)	4 (6.4)	1 (1.6)	5 (8.1)	1 (1.6)	0 (0.0)	
학교급	중학교	9 (18.0)	5 (10.0)	7 (14.0)	12 (24.0)	10 (20.0)	4 (8.0)	1 (2.0)	2 (4.0)	0 (0.0)	0 (0.0)	4.57 (.87)
	고등학교	21 (23.3)	11 (12.2)	11 (12.2)	16 (17.9)	14 (15.5)	7 (7.8)	1 (1.1)	8 (8.9)	1 (1.1)	0 (0.0)	
전체		30 (21.4)	16 (11.1)	18 (12.9)	28 (20.0)	24 (17.1)	11 (7.9)	2 (1.4)	10 (7.1)	1 (0.7)	0 (0.0)	

- \* 단계 1.끼워주지 않는 것(먼저 말 걸지 않는 것)      2.싫은 표정을 짓거나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3.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      4.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사이버 포함)  
 5.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6.위협적인 언행 및 협박하는 것  
 7.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8.때리고 발로 차는 것  
 9.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흉기를 사용하는 것      10.살인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경향을 살펴보면, H중·고등학교의 탈북학생들은 1단계인 ‘끼워주지 않는 행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남자 23.0%, 여자 19.4%로 나타났고, 성별과 상관없이 전체 탈북재학생들의 82.5%는 1단계(끼워주지 않는 행위)부터 5단계(노골적인 따돌림) 사이의 행위들을 통상 학교폭력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탈북남학생들의 경우 1단계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고, 탈북여학생들은 1단계나 4단계(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5단계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20.9%로 특히 높았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은 학교급 간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탈북중고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1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탈북중학생들은 4단계인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비율이 24.0%로 가장 높았고, 탈북고등학생들은 1단계인 '끼워주지 않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2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성별 및 학교급과 상관없이 8단계인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이나 그 이상의 단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탈북학생들의 비율도 7.8%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일부 탈북학생들은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자유아시아방송(2011년 1월 19일자)은 온라인에 다음과 같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탈북학생들 가운데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중에는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폭력의 원인은 탈북해 한국에 오는 과정 자체가 좌절스럽기도 하고 고통을 수반한 경우가 많아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북한에서의 교육이나 북한사회가 남한사회에 비해 폭력에 대해 관대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폭력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발췌문에서와 같이 북한청소년사회가 폭력에 대해 관대한 측면이 있음은 상기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맥락적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 2) 가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

표 11은 폭력지수 10단계에 기초하여 가해자의 입장일 때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분석한 결과이다(연구문제 2). 가해자의 입장에서 탈북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은 전술하였던 전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다소 관대한 경향을 나타냈다. 물론 가해자의 입장이다 하더라도 다수의 탈북학생들은 1단계부터 5단계 사이의 폭력행위를 통상 학교폭력을 인식하였으나, 그 비율은 77.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의 입장에서, 탈북남학생들의 경우 3단계와 4단계인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과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학교폭



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반면, 탈북여학생들은 5단계인 ‘노골적인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교급 간 분석에서도 유사하였다.

표 11  
가해자 입장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명(%))

특성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9 단계	10 단계	X <sup>2</sup> (p)
성별	남자	14 (17.9)	3 (3.8)	16 (20.6)	14 (17.9)	12 (15.4)	8 (10.3)	5 (6.4)	5 (6.4)	1 (1.3)	0 (0.0)	14.94 (.09)
	여자	13 (20.6)	9 (14.3)	4 (6.3)	9 (14.3)	15 (23.8)	3 (4.7)	2 (3.2)	7 (11.2)	1 (1.6)	0 (0.0)	
학교급	중학교	9 (18.0)	3 (6.0)	8 (16.0)	10 (20.0)	8 (16.0)	4 (8.0)	2 (4.0)	6 (12.0)	0 (0.0)	0 (0.0)	4.77 (.85)
	고등학교	18 (19.8)	9 (9.9)	12 (13.1)	13 (14.3)	19 (20.9)	7 (7.7)	5 (5.5)	6 (6.6)	2 (2.2)	0 (0.0)	
전체		27 (19.1)	12 (8.5)	20 (14.2)	23 (16.3)	27 (19.1)	11 (7.8)	7 (5.0)	12 (8.5)	2 (1.5)	0 (0.0)	

- \* 단계 1.끼워주지 않는 것(먼저 말 걸지 않는 것)      2.싫은 표정을 짓거나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3.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      4.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사이버 포함)  
 5.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6.위협적인 언행 및 협박하는 것  
 7.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8.매리고 발로 차는 것  
 9.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흉기를 사용하는 것      10.살인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6단계인 ‘위협적 언행과 협박’부터 9단계인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흉기의 사용’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탈북학생들의 비율이 남자 24.4%와 여자 20.7%로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일부 탈북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폭력에 대해 다소 관대하거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학교폭력을 정의하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6단계(위협적인 언행 및 협박) 이상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탈북중학생은 24.0%, 탈북고등학생 22.0%으로 나타나 학교급과도 관계없이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탈북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인식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피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

표 12는 폭력지수 10단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분석한 결과이다(연구문제 2).

표 12

피해자 입장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명(%))

특성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9 단계	10 단계	X <sup>2</sup> (p)
성별	남자	15 (19.3)	7 (9.0)	16 (20.5)	18 (23.0)	11 (14.1)	5 (6.4)	4 (5.1)	2 (2.6)	0 (0.0)	0 (0.0)	13.49 (.14)
	여자	14 (22.7)	9 (14.5)	5 (8.0)	14 (22.7)	11 (17.7)	2 (3.2)	0 (0.0)	5 (8.0)	2 (3.2)	0 (0.0)	
학교급	중학교	9 (18.0)	6 (12.0)	6 (12.0)	13 (26.0)	7 (14.0)	4 (8.0)	2 (4.0)	3 (6.0)	0 (0.0)	0 (0.0)	5.40 (.80)
	고등학교	20 (22.2)	10 (11.1)	15 (16.7)	19 (21.1)	15 (16.7)	3 (3.3)	2 (2.2)	4 (4.5)	2 (2.2)	0 (0.0)	
전체		29 (20.7)	16 (11.4)	21 (15.0)	32 (22.9)	22 (15.7)	7 (5.0)	4 (2.9)	7 (5.0)	2 (1.4)	0 (0.0)	

- \* 단계 1.끼워주지 않는 것(먼저 말 걸지 않는 것)      2.싫은 표정을 짓거나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 3.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      4.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사이버 포함)
- 5.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6.위협적인 언행 및 협박하는 것
- 7.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8.매리고 발로 차는 것
- 9.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흉기를 사용하는 것      10.살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갖는 학교폭력에 대한 탈북학생들의 인식은 1단계부터 5단계 사이에 상대적으로 좀 더 집중(약 86%의 탈북학생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 남녀학생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4단계(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탈북중학생들은 4단계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으나, 탈북고등학생들의 경우 4단계(21.1%)뿐만 아니라 1단계(22.2%)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3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인 8단계나 그 이상의 단계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탈북학생들이 전체의 6.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일부 탈북학생들은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둔감한 인식 성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2.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사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단계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탈북학생들이 교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폭력의 단계를 살펴본 결과, 탈북남학생들은 3단계(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와 4단계(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를, 탈북여학생들은 4단계부터를 주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로 인식하였다. 특히, 탈북남학생들(25.6%)과 탈북여학생들(22.6%)은 공통적으로 4단계부터를 교사가 개입하여야 할 폭력단계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3  
탈북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인식 단계

(명(%))

특성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9 단계	10 단계	$\chi^2$ (p)
성별	남자	10 (12.8)	6 (7.7)	10 (12.8)	20 (25.6)	17 (21.9)	7 (9.0)	3 (3.8)	4 (5.1)	1 (1.3)	0 (0.0)	3.00 (.96)
	여자	11 (17.7)	4 (6.5)	8 (12.9)	14 (22.6)	9 (14.5)	6 (9.7)	5 (8.0)	4 (6.5)	1 (1.6)	0 (0.0)	

특성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9 단계	10 단계	$\chi^2$ (p)
학교급	중학교	5 (10.0)	6 (12.0)	5 (10.0)	15 (30.0)	6 (12.0)	6 (12.0)	3 (6.0)	3 (6.0)	1 (2.0)	0 (0.0)	9.18 (.42)
	고등학교	16 (17.8)	4 (4.4)	13 (14.4)	19 (21.1)	20 (22.2)	7 (7.8)	5 (5.6)	5 (5.6)	1 (1.1)	0 (0.0)	
전체		21 (15.0)	10 (7.1)	18 (12.9)	34 (24.3)	26 (18.6)	13 (9.3)	8 (5.7)	8 (5.7)	2 (1.4)	0 (0.0)	

- \* 단계 1.끼워주지 않는 것(먼저 말 걸지 않는 것)      2.싫은 표정을 짓거나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 3.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것      4.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사이버 포함)
- 5.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6.위협적인 언행 및 협박하는 것
- 7.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8.때리고 발로 차는 것
- 9.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흉기를 사용하는 것      10.살인

반면, 탈북중학생집단에서는 4단계 수준의 학교폭력행위부터 교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이 30.0%로 가장 높았으나, 탈북고등학생집단에서는 4단계(21.1%)뿐만 아니라 5단계인 ‘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행위’에 대하여 교사의 개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22.2%로 매우 높았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인 8단계(때리고 발로 차는 것)나 그 이상의 단계를 교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 탈북남학생은 6.4%, 탈북여학생은 8.1%, 탈북중학생은 8.0%, 탈북고등학생은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일지라도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일부 탈북학생들은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이 아닐 경우 교사의 개입을 덜 필요로 하며, 웬만한 수준의 폭력문제는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함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탐구하고자 수행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탈북학생들은 폭력지수 10단계 중 4단계인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부터 학교폭력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고, 일부 탈북학생들은 1단계인 ‘끼워주지 않는 것’부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8단계인 ‘때리고 발로 차는 것’ 또는 그 이상의 단계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탈북학생들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7.8%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입장일 경우는 6.4%,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탈북학생들은 성별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는 단계부터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학생들에게 나타나며,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일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엄격한 반면,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관대한 성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한편, 폭력지수 10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교사가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4단계인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선택한 탈북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단계(끼워주지 않는 것)와 8단계(때리고 발로 차는 것) 이상을 선택한 탈북학생들의 비율도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성별 및 학교급과 상관없이 일부 탈북학생들이 폭력지수의 8단계나 그 이상의 단계에서 교사 개입의 필요성을 지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아닐 경우 교사의 개입을 덜 필요로 하며, 웬만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경향에는 예민함과 관대함이 공존하였고, 일부 탈북학생들은 신체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있어야만 학교폭력으로 지각하거나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면 교사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당면하려는 성향도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탈북청소년들의 인식 및 이해에 기반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및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통하여 탈북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견인하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이기도 한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폭력지수 10단계는 핀란드의 Kiva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정규학교문화에도 여과 없이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폭력지수에서는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정도가 낮은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의 유형과 맥락이 날로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현재에도 반드시 그러한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정신적·문화적 아노미를 경험하므로 선행연구들은 그간 이들의 불안심리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심리가 학교폭력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비단 탈북청소년들의 안전과 미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도 중요한 쟁점일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다양한 접근관점과 방법론을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곽종문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과 사회적응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213, 19-21.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탈북학생 통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탈북학생 주요 통계자료**.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 학교폭력이란. <http://www.stopbullying.or.kr/bullying>에서 2014년 4월 20일 인출.
- 권이중, 이상오, 김용구 (2008).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서울: 통일부.
- 금명자, 권혜수, 이화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 김범수 (2009).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나 (2010).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청소년학연구**, 17(11), 27-46.
- 김형섭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우 (2009).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주 (2003). **탈북청소년의 공교육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중진, 박광섭, 박행렬 (20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수립 용역**.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문성호 (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복지의 과제. **한국청소년복지연구**, 7(1), 5-17.
- 민성길 (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성기 (2008).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

-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자 (2013). 탈북청소년 개인역량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13-S36), 1-34.
- 박운숙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특성과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일수 (2013).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초등학교의 사례분석. **초등교육연구**, 26(3), 93-117.
- 박혜숙 (2013).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13-S-36), 35-62.
- 박효정 (2008). **학교폭력지표 개발 연구**(RR 2008-09-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방기연 (201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2(5), 1753-1778.
- 신옥주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한국청소년지도학연구**, 12(1), 95-117.
- 신효숙 (2009). 북한 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3(1), 27-61.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권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25-45.
- 윤상석 (2013). 탈북청소년 사회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  
문가 워크숍 자료집**(13-S36), 63-84.
- 윤영수 (201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학생, 학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철경, 강명숙 (2012).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수시보고 12-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옥 (2013). **탈북청소년들의 학교교육과정, 학교생활, 진로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영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분석**(01-R2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논리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연구**, 20(2), 257-281.
- 이상교 (2012).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권 (2008).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마산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복 (2009).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정 (2006). **세터민 지원 NGO 실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자유아시아방송 (2011. 1. 19). RFA초대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이향규 교육팀장.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_invitation-01192011113408.html?searchterm=utf8:ustring=%EB%B6%81%ED%95%9C+%ED%8F%AD%EB%A0%A5+%EA%B4%80%EB%8C%80](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_invitation-01192011113408.html?searchterm=utf8:ustring=%EB%B6%81%ED%95%9C+%ED%8F%AD%EB%A0%A5+%EA%B4%80%EB%8C%80)에서 2014년 4월 20일 인출.
- 장진희 (2013). **세터민 청소년 정착과 교육방안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익수 (2002).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경 (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연구**(RR 2008-09-0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숙 (201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조영애 (2007).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태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 교사와 학부모, 경찰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아 (2004).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1), 121-146.
- 최경자 (2008). **세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선 (2007). **새터민 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성애, 조벽 (2012). **청소년 감성코칭**. 서울: 해냄.
- 한국교육개발원 (2014).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http://www.hub4u.or.kr/hub/edu/understand.do>에서 2014년 4월 20일에 인출
- 한만길, 강구섭, 김일혁, 이향규, 김윤영 (2013).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V)**(RR 2013-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2014). 통일을 가지고 온 아이들, 탈북청소년. 국립국어원 소식지.
- 홍덕기 (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혜, 김선화, 이숙영, 윤지혜 (200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 문화 적응 실태 및 남한생활 인식 변화에 대한 추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135-166.
- 황진수, 전신욱 (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지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67-292.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다큐프라임: 언어폭력개선 프로젝트-1부 영혼의 상처 언어폭력.
- 허은영 (2009).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chool bullying by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Eun, Jihyun\* · Cho, Youngha\*\*

This paper delved into the ways in which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enrolled in South Korean formal secondary school perceive school bullying. Using the 10 phases of the school bullying index, we surveyed 142 students of H specialized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were founded f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in March 2006. Their perceptions of school bullying were mainly examined us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1) general perceptions; 2) perceptions from the assailant's perspective and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d 3) when they felt that teachers should intervene in a school bullying problem.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students generally perceived the fourth phases or above of the index as school bullying. The fourth phase refers to actions like starting a rumor or making insulting remarks. However, some of them understood school bullying in terms of physical violence, for example, hitting somebody. They were impervious to school bullying from the assailant's perspective as opposed to the victim's perspective. In the victim's perspective, the students seemed to feel that teachers should intervene in incidence of school bullying from the fourth phase or above of the index. They also demonstrated a tendency to deal with school bullying by themselves if it is not direct and physical in nature. In the conclusion,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direction are provided.

Key Words: school bullying,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index

투고일: 2014. 9. 14, 심사일: 2014. 11. 17, 심사완료일: 2014. 12. 8

---

\* Hangyore High School

\*\*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oucho@khu.ac.kr